스위스 그랜드 투어 체험 팁.

여정 그 자체가 목적인 아름다운 드라이브 여행

스위스 3 대 고갯길 드라이브
빙하체험부터 포도밭 하이킹까지 다채로운 체험거리들
드라이버에게 편리하고 풍경까지 감동적인 자동차 호텔도
자동차 수송 유람선과 기차부터 피크닉 박스까지 유용한 팁
10 월 중순까지만 이용한 코스들은 가을 허니무너들에게 안성맞춤

자동차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고속도로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최대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한다는 '이동'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조금만 더 여유를 갖는다면 국도를 이용해 풍경 속에서 달리며 '여정' 자체를 즐길 수 있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2015 년부터 '스위스 그랜드 투어(Grand Tour of Switzerland)'라는 테마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며 알프스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오고 있다. 2017 년에는 세계 최초로 전기 자동차 로트 트립을 선보이기도 했다. 약 300 개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스위스 전역에 설치되어 있어 1600km 이상 펼쳐진 드라이브 코스를 보다 자연 친화적으로 이용하며 스위스 자연의 품 속을 달릴 수 있게 되었다. "스위스 그랜드 투어(Grand Tour of Switzerland)" 코스를 전기 차량을 이용해 달리며 5 개의 알프스 고갯길, 22 개의 호수, 12 개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비롯해 다채로운 스위스의 풍경을 보다 자연 친화적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오는 가을, 허니문 시즌에 스위스를 찾는 커플들에게도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해 줄 여행 법이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스위스의 숨겨진 풍경을 찾아, 직접 운전대를 잡아볼 만하다.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며 스위스의 작은 마을과 알프스의 고갯길 등,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힘든 숨겨진 명소와 가장 스위스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며 알프스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사랑을 속삭여 보자. 물론, 알프스 고갯길같이 짜릿한 스릴이 넘치는 코스도 많지만, 허니문인만큼 여유있고 낭만적인 여정이 쭈욱 이어질 수 있는, 조금 쉽지만 경치만큼은 난이도가 높은 코스도 많다.

스위스 그랜드 투어 코스는 산속 코스들이 여름 시즌, 즉 5 월부터 10 월 중순까지만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스위스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는 스위스 그랜드 투어 코스에 대한 팁을 아래와 같이 한국 여행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1. 스위스 3 대 고갯길

1) 그림젤 고개(Grimsel Pass)

루체른(Luzern) 방향에서 출발했다면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고갯길이다. 암벽이 많고 원시적 매력이 살아있는 풍경은 도로를 따라 산을 오르며 점차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젤 고개 중간에 경험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매력을 더해주는데, 대표적으로 아레 계곡(Aareschlucht), 그림젤 호스피츠(Grimsel Hospiz)의 테라스, 겔머반(Gelmerbahn) 퓨니큘러와 겔머 호수를 추천한다. 자연의 위대함과 풍광, 스릴을 모두 챙길 수 있다.

2) 푸르카 고개(Furka Pass)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본격적인 고갯길의 느낌이 드는 푸르카 패스는 그림젤 패스와는 또 다른 자연적 매력이 넘친다. 산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 둘러 달리는 도로의 굽이짐을 경험하는 것이 운전자로서의 재미다. 푸르카 고개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멈춰서 구경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구간은 벨베데르 호텔(Hotel Belvedere)이 있는 벨베데르 론네글레처(Belvédère Rhonegletscher)다. 가장 많은 여행자가 멈춰서는 곳이기도 하다. 성인 1 인당 CHF 9 를 내면 산너머의 빙하와 동굴 체험도 가능하다. 이후 구간은 운전자에게 스릴이 넘치는 구간인데, 도로 폭이 좁고 사이드의 울타리가 표시석 정도로만 박혀있기 때문에 그 너머로 아찔한 경사와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달릴 수 있다. 스위스의 과감하면서도 배려 넘치는 운전 문화로 인해 의외로 교통은 원활한 편이다. 토텐 호수(Totensee)를 지나자 마자 꺾이는 구간에서는 말 그대로 그림젤 패스의 헤어핀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차 1~2 대가 잠깐 설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멀리 보이는 풍광과 바로 옆을 지나는 자전거, 모터사이클과 클래식 카를 보는 재미도 있다.

3) 생고타드 고개/발 트레몰라(St.Gotthard Pass / Val Tremola)
고타드 패스의 옛 도로는 사실 새 도로가 난 이후로 네비게이션에서는 추천해주지 않는 길이지만, 200 년이 넘게 교통을 책임졌던 도로인 만큼, 돌길의 독특한 텍스쳐와 구불거리는 도로로 인해, 오르는 사람에게는 하늘 길이 열리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헤어핀은 꼭 경험해 볼 만하다. 자전거, 모터사이클의 통행 비중도 높은 편이다. 발트레몰라의 옆 고타드 패스 호수에서는 많은 여행자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2. 루체른 호수를 따라 이어지는 최고의 드라이브 뷰
벡기스(Weggis) – 비츠나우(Vitznau) – 오토 페리(Auto Ferri)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루체른(Luzern) 호수 지역에 스위스 최고의 드라이브 뷰라 해도 과언이 아닌 코스가 있다. 도보여행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벡기스, 비츠나우를 거쳐 리기(Rigi) 산을 향한다면, 자동차 여행에서는 반대로 마을을 따라 벡기스, 비츠나우를 거쳐 오토페리를 타보는 것을 권한다. 왼쪽으로는 리기산을, 오른쪽으로는 필라투스와 루체른 호수, 주변 산을 바라보는 파노라마와 아기자기한 스위스 마을의 골목을 교차하며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벡기스나 비츠나우에서 멈춰 잠시 유람선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다. 게르사우(Gersau)에서 차를 실을 수 있는 오토페리를 타면 시간 단축과 함께 유람선을 타고 루체른 호수를 가로지르는 풍경도 만끽할 수 있다. 오토페리의 2 층에서 그랜드 투어 표지판 인증샷도 필수다. 오토페리 가격은 자동차는 CHF 22, 사람은 1 인당 CHF4 다.

3. 곁들이는 체험 4 선
1) 올인원 자연 체험: 티틀리스(Titlis)-엥겔베르그(Engelberg)
일반적으로 티틀리스 정상에 올라 클리프 워크(Cliff Walk)와 아이스 플라이어(Ice Flyer)로 전망을 즐긴 후 바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여름에는 트륍 호수(Trübsee)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많으니 내려오는 길에 꼭 들러보면 좋다. 체험을 할 경우 약 4-5 시간 정도는 예상해야 한다. 트륍제 호수 피크닉 구역은 호수를 둘러 중간중간 마련되어 있으며 불을 피울 수 있는 화로와 나무가 준비되어 있어 소시지와 고기를 준비해 바베큐를 즐겨도 좋다. 트륍제 호수에 있는 보트는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보트 내부에 구명 조끼 마련되어 있으며 아이들도 잘 탈 정도로 쉬운데, 알프스 호수에서 노를 젓는 특별한 체험을 해 볼 수 있다. 꽃길 하이킹(Alpine Flower Trail)은 스쿠터 바이크까지 연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액티비티다. 약 1 시간-1 시간 반 정도 거리로 스위스의 다양한 꽃과 생태 환경을 트륍제 호수를 둘러가며 체험할 수 있다. 스위스 소들이 엄청 많아 교감도 가능하다. 트륍제 호수 절반쯤을 돌아

휘에트휘테(Hüethütte) 근처에서 약간의 언덕을 오르면 운터트륍제(Untertrübsee)로 내려가는 케이블카를 탈 수 있으며, 케이블카 근처의 운터트륍제 레스토랑(Untertrübsee Restaurant)에서 스쿠터바이크를 대여할 수 있다. 운터트륍제에서 엥겔베르그까지 초원과 숲속을 거쳐 스쿠터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다. 스쿠터바이크 반납은 티틀리스-엥겔베르그 승강장 뒷편에서 가능하다.

2) 스릴 넘치는 빙하 스토리: 그림젤발트(Grimselwald)

그림젤 패스를 중심으로 곳곳에 이어지는 그림젤발트의 체험 포인트 중 대중적으로 인기있을 3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겔머반(Gelmerbahn) - 겔머호수(댐)

겔머반에 오르기전 꼭 거치는 다리, 한데크팔브뤼케(Handeckfallbrücke)는 참 아름답다. 빨간색 퓨니큘러, 겔머반을 타고 오르는 길에 볼 수 있는 아래로 펼쳐지는 풍경은 담력을 시험하기에 충분하다. 맑은 날 천천히 상승하는 오픈형 산악열차에 앉아 넓게 펼쳐지는 풍광과 아찔한 아래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다. 담력이 좋다면 제일 앞자리에 앉을 것을 권한다. 겔머반을 타고 호수에 오르면 비현실적으로 보일만큼 푸르른 에메랄드 빛 호수를 만나게 된다. 호수를 따라 하이킹을 하면서 호수의 아름다움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으며, 야생의 정원과 암석들이 이어진다. 하이킹은 호수의 1/3 지점까지는 난이도가 낮고, 중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오르막 길에 접어든다. 4-5 시간 이상을 잡는다면 전체 코스를 완주할 수 있다.

- 아레협곡(Aare Gorge, Aareschlucht)

빙하와 시간이 녹인 협곡은 한여름에 들어가도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시원하다. 협곡과 동굴 사이를 오가며 거치는 길 사이사이로 하늘과 풍경이 아주 잠깐씩 비추는데, 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실제로 관광객과 주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탐사 지역이며, 데크가 다 깔려 있어 편하게 둘러볼 수 있다.

- 라이헨바흐 폭포(Reichenbachfall)

마이링엔(Meiringen)의 홈즈 박물관과 더불어 스토리체험으로 좋은 곳이다. 실제로 홈즈 박물관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라이헨바흐 폭포를 바라볼 수도 있다. 빌리겐(Willigen)에서 퓨니큘러를 타고 풍경을 즐기며 약 7-8 분을 오른다. 폭포는 퓨니큘라 종착역에 있는 전망대 외에 하이킹을 통해 폭포 위쪽까지 조망할 수 있으며, 반대편으로는 마이링엔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도 있다. 홈즈와 모리아티 교수가 싸운 곳까지 하이킹을 할 경우 1-2 시간을 예상하면 된다.

3) 해발 1500m 에서 즐기는 액티비티: 베르비에(Verbier)

베르비에는 체르마트와 비슷한 느낌이면서도 좀 더 캐쥬얼하고 아기자기하다. 이곳은 자동차로 마을 중심까지 이동이 가능하며, 베르비에로 오르는 헤어핀 역시 스릴과 함께 발레주 산의 풍경을 즐기며 운전할 수 있다. 몽포르(Mont Fort) 전망대에 오르면 한여름에도 녹지 않는 만년설에 둘러싸인 알프스 산맥을 조망할 수 있으며, 아래 쪽으로 눈과 호수의 이색적인 풍경도 매력있다. 돔 형태의 바와 테라스에서 간단한 간식을 즐기면 좋다. 몽포르 케이블카 역이 있는 라 쇼(La Chaux VS)에는 나무로 된 베르비에 조형물이 있어 사진을 남기기에 좋다. 베르비에는 자전거의 천국으로 불리울 만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으며, 실제로 마을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서 다양한 자전거 체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초급자라면 전기자전거를 빌려 마을에서 산으로 이르는 약 1 시간 - 1 시간 반 정도의 코스 선택해 보아도 좋다. 루트 중간 중간이 다운힐 코스와 엮일 수 있으나, 초급자라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 내려오는 것도 방법이다.

4) 포도밭 드라이브와 하이킹 트레일

발레주의 로이크(Leuk)에 접어들면서부터 포도밭 드라이브가 시작된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오가며 시에르(Sierre) - 시옹(Sion) - 마티니(Martigny)를 따라 오른편의 산등을 따라 쭉 이어지는 와이너리와 포도밭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포도밭 트레일은 시에르(Sierre)와 잘게쉬(Salgesch)의 와인박물관을 연결하는 트레일로, 편도 6km 의 약 3 시간 코스다. 시에르와 잘게쉬 사이의 루트를 따라 포도밭과 현지의 유명한 명사 포인트를 만날 수 있다. 트레일을 모두 즐길 시간이 없다면 시에르의 꺄브 베르뉜(Cave Bernunes) 근처에서 주차를 하고 잠시 포도밭 산책을 하는 것도 추천한다. 특히 이 주변에서는 언덕 아래로 기차가 포도밭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색적인 풍경도 볼 수 있다.

4. 자동차와 함께하는 호텔

1) 호텔 그림젤 파스회헤(Hotel Grimsel Passhöhe)

그림젤 패스 중간에서 만나는 토텐 호수에는 총 4 개의 레스토랑&호텔이 있는데, 그중 그림젤 파스회헤는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보다 모던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본격적인 3 대 고갯길을 거치기 전 테라스에 앉아 토텐 호수와 함께 커피 한 잔도 좋고, 토텐 호수의 안개가 걷히며 드러나는 거울같은 호수의 풍경과 함께 아침을 맞는 것도 좋다.

2) 25 시 호텔 취리히 웨스트(25hours Hotel Zürich West)

취리히 구시가에서 주차장이 있는 적절한 가격의 호텔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공항과 가까우면서도(10km 내외) 주차가 보장되고, 취리히의 트렌디함을 근처에서 바로 즐기고 싶을 때 추천한다. 4 성급 호텔로, 25hours, 쉐라톤, 상업지구가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는 넓은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호텔로 올라갈 수 있다. 스위스의 디자인 감각에 위트를 얹은 25hours 만의 개성이 가득 담긴 객실은 사진에서 보기보다 넓고 쾌적하며, 객실마다 주어진 프라이탁 가방은 숙박하는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잠시 운전을 멈추고 도보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호텔 바로 앞의 트램을 타고 웨스트와 구시가까지 편하게 여행도 가능하다.

3) 뷔르겐슈톡 리조트(Bürgenstock Resort Lake Lucerne)

루체른 호수를 조망하며 드라이브를 한참 즐겼다면 이제 멈춰서 전망을 즐길 차례다. 유람선-산악열차로도 이동이 가능한 뷔르겐슈톡 리조트는 5 성급 호텔로, 리모델링을 통해 2017 년 재개장하여 손님을 끌고 있다. 호텔까지 이르는 드라이브 길은 로컬이 사는 마을들을 거쳐 점점 더 산 속으로 깊숙이 이어진다. 호텔의 옆에 난 산책길은 초보자가 걷기에 무리가 없는 가벼운 하이킹이 가능하며, 약 30 분 정도의 시간이면 뷔르겐슈톡 전망대로 오르는 함메취반트(Hammetschwand) 리프트에 오를 수도 있다. 만약 느긋한 휴식이 필요하다면 뷔르겐슈톡 리조트의 테라스에서도 충분히 루체른 호수의 전망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추천하는데, 뷔르겐슈톡 리조트 오픈 스파는 인스타그램에서 핫한 명소다.

4) 르 몽 패지블 호텔 레스토랑(Le Mont Paisible Hotel Restaurant)

크랑몬타나(Crans-Montana) 마을 사이의 굽이진 헤어핀을 지나 산 중턱에 올라서야 도착할 수 있다. 오르는 길을 보상하는 것은 호텔 객실에서 맞는 테라스의 전망이다. 아침에 깨어나 처음 바라보는 풍경이 발레주를 아우르는 산맥들 사이로의 일출이니 그 감동이 대단하다. 호텔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주변 마을에서 생산한 로컬 와인을 곁들이면 좋다.

5. 유용한 팁들

1) 시간을 단축하는 오토 페리(Auto Ferri)와 자동차 수송 기차

- 아우토 패흐레(Auto Fähre)
벡기스 - 비츠나우 드라이브에서 추천한 오토페리는 게르사우(Gersau) – 벡켄리드(Becknried) 사이를 이동하며, 운항 시간은 약 15 분 정도다. 타고 내리는 것까지 포함해 약 30 분 간격으로 운항한다. 티켓 구매는 페리에 탑승한 후 직원에게 구매 가능하며, 현금만 가능하다. 자동차와 탑승 인원 티켓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오토 페리를 활용하는 경우 루체른 호를 돌아가는 40-50 분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 자동차 수송(Car Transport) 기차
레알프(Realp) – 오버곰스(Obergoms) 사이를 연결하는 마테호른반(Matterhornbahn)의 아우토베를라드 푸르카(Autoverlad Furka)와, 고펜슈타인(Goppenstein) – 칸데르슈테그(Kandersteg) 사이를 연결하는 베엘에스 아우토베를라드(BLS Autoverlad)는 무척 유용하다.기차에 연결된 데크에 자동차를 그대로 실은 후, 시동을 끄고 차 안에 있으면 된다.
두 자동차 수송 기차 모두 산맥을 통과하는 터널을 지나므로, 한 시간 반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2) 그랜드 투어 스낵 박스(Grand Tour Snack Box)
낭만 여행자라면 그랜드 투어 스낵 박스(Grand Tour Snack Box)를 챙겨 보아도 좋다. 스위스 전역에 펼쳐진 그랜드 투어 루트 중 약 30 개의 공식판매처에서 2 인용 피크닉 박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명물 먹거리를 담아 두었다. 2 개의 음료와 5 개의 수제 스낵이 빨간 박스 안에 정성스레 담겨져 있다. 에멘탈 치즈, 너트 케익, 보리 빵 등 유명 베이커리, 치즈 공방, 소시지 장인, 농가 등에서 로컬 식재료를 이용해 만든 스낵을 맛 볼 수 있다. 2 인용 스낵 박스는 CHF 45 다. 판매처 리스트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MySwitzerland.com/snackbox

자료 제공: 스위스 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